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문 윤 희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영재 양육 사례라 할 수 있는 창조적 성취자의 부모를 동서양으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영재 양육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 인물로는 마리 퀴리, 아인슈타인, 에디슨, 뉴턴을 동양 인물로는 이황, 이이, 정약용, 허난설헌의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양육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양육자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자녀인 창조적 성취자의 전기, 평전, 자서전, 저서, 양육자와 주고받은 편지 외에 필요에 따라 국내외 연구 논문, 단행본, 영재교육기관의 간행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서양 8인의 양육자가 보인 양육 방식의 공통점은 자녀의 재능 영역에 대한 교육적 역량 소지, 재능 영역에서의 학습 가능 환경 또는 기회의 제공, 강요하지 않는 교육, 독립심·강인한 정신력의 강조, 혁신·개방적 사고방식, 한쪽 부모의 절대적 지지를 들 수 있다. 동서양 양육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들은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목표로서 재능 개발 및 성취를 장려했으나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 서양의 부모가 자녀와 수평적 관계로 상호 작용 하였음에 반해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와 수직적 관계를 보였다는 점, 서양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양육 방식을 보였으나 동양의 부모는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서양의 부모가 자녀에게 실수하는 모습, 잘못된 모습까지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에 비해 동양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각각과 관련하여 영재양육과 관련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비교문화연구, 양육특성, 창조적 성취, 부모교육, 영재양육

I. 서 론

재능은 타고났다고 해서 저절로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재능 영역 및 수준에 관계없이 그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와 교사이다. 특히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 최초의 교사이자 또 영원한 교사로서 한 개인의 초기 경험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성원, 최성연, 2002; 배남주, 여성희, 2004; 배진수, 1995; Charlotte, 2004; David, 2005; Goertzel & Goertzel, 2004). 이는 부모에 의해 인간 재능 발달의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결정되고 부모에 의해 재능의 수준이나 발현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재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영재는 형제수가 적은 가정의 맏이, 맏이가 아니면 터울이 큰 동생, 아버지의 나이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김정휘, 1996). Terman이 1921년부터 14년간 추적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영재 자녀가 많았다(김언주, 1998). Feldman (1991)이 10년 동안 수행한 신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동을 가진 부모는 다른 신체 장애아나 정신박약의 부모 이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자신의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헌신한 경우가 많았으며, Bloom (1985) 역시 음악, 미술, 수학,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인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의 열렬한 후원 속에서 재능의 발전이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경원, 2000). 영재성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 수준, 직업, 가계 수입 수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들 수 있다(김언주, 1998; 이신동, 2002; 최성연, 2001). 한 예로 강필선(2001)에 의하면 영재의 부모는 연령과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월평균 소득도 일반 아동에 비해 높다. 일반적으로 영재의 부모는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을 갖추며 양질의 가정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Patricia, 2004; Robinson, 1998; Simonton, 1994).

그러나 높은 학력의 부모를 둔 자녀만이 영재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을 갖춘 가정에서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영재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은 높은 학력, 경제적인 풍요, 좋은 가정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 교육적 배경, 태도, 양육방법 등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정휘, 2000;

이신동, 2002).

영재성 개발에 미치는 부모 영향력이 점차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영재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및 가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영재성이 보이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자료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정휘, 백영승, 2001; 김홍원, 2003;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또한 이들 연구들은 잘못된 양육으로 인하여 영재아동의 재능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재교육의 목표인 영재성의 최대 발현, 즉 창조적 성취를 이끌기 위해 부모로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수많은 창조적 성취로 인해 변화·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Gardner(1993)는 그의 저서 *Creating Minds*에서 창조적 성취를 이룬 7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창조의 본성과 조건에 접근을 시도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창조적 성취는 타인, 특히 부모의 격려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용린(2004) 역시 가드너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창조적 성취를 이룬 역사적 위인에게도 그의 성취를 격려·지원한 양육자가 존재했고, 그 양육자의 어떠한 특성이 창조적 성취를 이끄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조적 성취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창조적 성취자 부모의 구체적 양육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물론 창조적 성취 및 성취자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창조적 성취자의 부모 혹은 양육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성취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더욱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그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성취자의 부모, 창조적 성취자를 키워낸 양육자의 특성에 대한 탐색은 자녀의 양육이라는 중대한 책임을 가진 부모들에게 시사점이 큰 만큼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성취자로 뉴턴, 아인슈타인, 마리퀴리, 에디슨, 이황, 이이, 정약용, 허난설헌 등 8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양육배경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Gardner(1993)는 창조적 성취의 조건을 연구한 ‘창조성의 발견’ 초반부에서 마호메트와 공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접은 이유로

자료 수집의 제한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8인의 인물 외에도 창조적 성취를 이룬 수많은 인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객관적 자료 수집의 상대적 용이성을 연구의 대상 선정에 있어 염두에 두었음을 밝힌다.

8인을 선정함에 있어 동양과 서양에서의 위인들을 균형 있게 선정한 이유는 창조적 성취자들의 양육 배경과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 비교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분석하고자 함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 특성은 그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문화를 반영한다(유가호, 1995). 그렇다면 창조적 성취자 양육에 있어 동서양간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성은 무엇이고, 문화에 국한된 특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정된 인물들이 창조성을 발휘한 영역이 동서양 별로 다른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서양 문명을 발전시켜 온 대표적 동력이 과학적 성과라면 동양은 사상과 철학의 발전에 더 큰 토대를 두고 있음으로 문화 간 창의적 영역의 상이함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사람들은 창조적 성취 및 성취자 자체에 주목하고 열광한다. 반면 그러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끼친 부모 영향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였다. Gardner(1993)와 Clarke(2001)은 창조적 성취를 이룬 역사적 인물의 창의적 본성 및 특성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성취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끼친 영향에 대한 언급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조적 성취를 이룬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의 성취 및 양육 배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탁월한 창조적 성취를 이룬 동서양 8인(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마리 퀴리, 이항, 이이, 정약용, 허난설헌)의 부모를 선정하여 자녀의 창조적 성취를 이끌어낸 동서양 부모의 양육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창조적 성취자를 길러낸 동서양 양육자들의 양육에서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문화적 보편성 및 특수성 이란 맥락 하에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 성취를 이룬 위인을 선정하기 위해 동양의 부모로 퇴

계 이황의 부모, 율곡 이이의 부모, 정약용의 부모, 그리고 허난설헌의 부모를 선정하였으며, 서양의 부모로는 뉴턴, 에디슨, 아인슈타인, 그리고 마리 퀴리의 부모를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창조적 성취를 이끈 위인을 연구한 Gardner(1993)의 『Creating minds』, Csikszentmihalyi(2003)의 『Creativity :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Goertzel과 Hansen(2004)의 『Cradles of Eminence II』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위인을 1차 선정하였다. 여기서 선정된 서양 위인의 수는 다수인 것에 비해 동양의 위인은 극소수로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국내에서 출간한 위인전, 자서전, 평전의 위인들 중 가장 많이 출판된 위인들을 중심으로 2차 선정하였다.

Gardner(1993)는 “창조적 성취란 기존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성취를 뜻한다”고 하였는데 창조적 성취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긴 업적이 시대가 흘러가도 사라지지 않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창조적 성취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대상의 최종 선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뛰어난 창의적 성취를 내었던 위인들을 선정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문헌이나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또한 동, 서양 각각의 경우에서 분석 대상 중 한명은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서양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태생의 위인들이 포함되었으나 동양의 경우 우리나라 위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이 선정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밝힌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 8인의 창조적 성취자의 양육자 특성 분석을 위하여 역사적 기록물과 창조적 성취자의 전기, 평전, 자서전, 저서, 양육자 및 타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을 통하여 양육자가 보인 양육방식과 특성 등과 양육대상자인 창조적 성취자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 등과 관련하여 양육자의 양육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창조적 성취를 이끈 양육자의 양육 특성을 시대적, 공간적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양육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조적 성취자 및 성취

결과에 대한 관심으로 그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나 정작 창조적 성취를 이루기까지 조력한 양육자에 관한 자료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육자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 자녀인 창조적 성취자의 전기, 평전, 자서전, 저서, 양육자와 주고받은 편지 외에 필요에 따라 국내 외 연구 논문, 단행본, 영재교육기관의 간행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예, 금장태, 2005; 박석무, 정해림, 1996; 박영순, 2003; 박영익, 2003; 성윤자, 1998; 심혜자, 2001; 오시림, 1993; 이덕일, 2004; 이은상, 1994; 이은직, 1990; 장진영, 2000; 장희익, 2002; 최효찬, 2005; 황준연, 2000; Westfall, 1993).

이 연구는 창조적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위인 8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부모 개인의 기본 정보와 둘째, 창조적 성취자와의 상호 작용 및 양육 방식의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지면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적 성취자에게 영향을 끼친 양육 방식을 수집한 후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특정 양육 방식으로 범주화 하는 분류 기준은 주로 영재 부모 역할을 폭넓게 제시한 김정휘(1996)의 영재 부모에게 기대되는 부모 역할, 즉 재능확인자, 사회적 모델, 외부세계에 대한 완충자, 훈육자, 사회적 기획자, 시간 관리자, 면담자, 교육자, 학교교육의 협력자 등의 기준을 참고로 하였으나 이외의 양육 방식이 발견된 경우 또는 기준으로 분류하기 적당치 않은 경우는 그에 맞는 별도의 용어로 함께 다뤄졌다. 창조적 성취자의 양육 방식은 동서양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다시 종합 및 분류하여 동서양의 창조적 성취를 이끈 양육 방식의 보편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창조적 성취를 이끈 동서양 양육자의 공통적 특성

어떤 부모가 가장 바람직한 부모이고 적합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연한 답을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람직한 부모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재나 신동들의 경우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통용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영재와 일반아동간의 특성 차이로 인해 일반아동에게는 바람직한 양육방식이 영재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 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

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 8인의 창조적 위인들의 부모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차별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양육특성이 바람직한 영재부모의 상이나 특성으로 모색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방향 제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고찰된 8인의 창조적 위인들 부모에게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르게 발견되는 양육방식이 있었다. 동서양의 구분 없이 이들은 자녀와 유사한 재능영역에서 관심이상의 재능이나 교육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모 한쪽의 절대적인 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절대 강요하지 않는 교육방식도 그들의 공통된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독립성을 강조하거나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의 강조도 추후 그들의 창의적 성취와 연계되는 동서양의 공통된 양육적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가. 자녀의 재능 영역에서의 평균 이상의 역량 소지

Bloom(1985)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의 부모는 부모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 자녀에게 일찍부터 재능 분야의 일을 체험시켜주었다고 한다. 아놀드 파머의 부모가 골프광이었다는 사실과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궁정 음악가 출신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Piirto, 2004). 골프광인 부모 아래서 자란 파머는 일반 아동 이상으로 골프에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음악가인 아버지의 음악 수업은 모차르트의 재능발현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창조적 성취를 이룬 위인들의 양육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재능 영역에 재능 또는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교육 관련 경력이 있어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교육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마리 퀴리의 부모는 양쪽이 다 교사 출신이다. 특히 아버지는 과학 교사 출신인데 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친 직업 수준에서의 과학인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 역량을 갖고 있던 과학자였다. 마리 퀴리의 아버지 스쿨로드 프스키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신간 과학서적을 구입하여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학 지식과 원리에 적응해 나갔고, 최초로 방사능을 발견한 딸의 연구가 갖는 가치, 현실적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백선희, 2003).

마침내 너는 순수한 라듐을 손에 넣었구나. 만세다! 그것을 얻기 위해들인 그 많은 작업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라듐은 화학원소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겠구나. 다만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이 일이 이론적인 중요함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애정이 담긴 키스를 네게 보내면서 이만 줄인다(1898년 아버지가 마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위 편지는 아버지의 사망 6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학문적 후원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어린 시절에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뜨기 며칠 전까지도 충실히 수행하였음과 라듐의 발견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스크로드프스키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렇듯 마리의 아버지는 과학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딸의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부계도 가업이 전기·화학 계통의 사업이라 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쪽 분야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인 헤르만 아인슈타인은 학창 시절, 수학 성적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삼촌인 야곱 아인슈타인 역시 수학에 관심이 남달랐고 조카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의 흥미를 알려주었다고 하니 그의 부계가 갖고 있는 수학·과학 영역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에디슨도 마리 퀴리의 경우와 같이 교사 출신의 어머니를 두었다. 마리퀴리의 재능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 성장되었다면 에디슨은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1970년대 들어와서야 홀트에 의해 주창되게 되는 홈스쿨링을 1847년 에디슨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시대를 앞 선 어머니 낸시 여사의 교육학적 역량과 통찰력을 짐작케 하는 일이다.

동양의 경우, 정약용은 특별한 스승 없이 문인, 학자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과정이 아버지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니 아버지의 학문 수준과 자식에 대한 관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는 정약용의 시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 우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라네(박석무, 2004 p104).”라는 구절을 보며 분수와 소장에 밝으니 자라면 역법과 산수에 능통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뒷날 실제로 정약용이 서양 과학의 수리에 밝았던 것을 보면 시의 한 구절에서 아들의 재능을 내다보는 그 부친의 통찰력이 감탄할 만하다.

퇴계 이황은 아버지가 그의 생후 7개월 만에 별세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재한 아버지가 퇴계 이황의 학문 정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윤사순, 2002). 아버지가 갖고 있던 영향력 중 첫 번째는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장서이다. 아버지 식의 장인이 장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장인이 세상을 뜨자, 장모가 “서책은 글을 좋아하는 선비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며 사위인 식에게 물려주었다. 퇴계의 아버지가 글을 좋아하고 책을 즐겨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황의 아버지가 얼마나 책을 좋아하였는지는 다음의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식사할 때 책을 옆에 두었고, 잠잘 때도 꿈속에서 책을 읽었다.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품안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너희들도 공연히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촌음을 아껴서 책을 읽어 학문으로 대성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퇴계 이황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훈계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대신하여 학문을 가르쳐 준 숙부 이우도 아버지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 평소 거처하는 곳에는 좌우에 항상 서적들이 가득 차 있어 그것을 즐기기를 맛난 음식같이 하고, 비록 질병이 있는 때라도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없었다(신연식, 1989, 1997). 독서는 단연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 책을 읽으며 자랄 수 있는 학구적인 환경 속에서 퇴계는 독서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글을 좋아하는 그의 학풍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임당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개인 자체로서도 한국의 여성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이미경, 1993). 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적 재능 모두가 뛰어나고 인격적이었으며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바느질이나 수놓기까지 뛰어난 사람이었다. 사문난적이라 하여 유학 외에 다른 학문이나 기술·예능적인 분야가 모두 배척 받을 당시, 사임당은 그림을 공부할 수 있었다. 사임당은 과거나 유학 등에 집착하지 않고 일찍부터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키워주는데 힘썼다. 예술 분야에서는 서화에 능한 맏딸 매창과 서화에 능한 막내아들 우를 화가로 키워냈으며, 셋째 아들 이를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키워냈다. 자식들이 어머니인 사임당으로부터 선천적인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사임당이 자식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이들의 재능계발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허난설현의 경우 그녀의 가문은 여기서 논한 다른 창조적 성취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 난설현은 자신과 함께 5성으로 일컬어지는 허엽, 허성, 허봉, 허균과 함께 생활하고 시를 공부했다. 시를 익히고 공부하는데 친혜의 환경이라는 평을 듣는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설현은 맘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난설현의 부는 고려 말의 재상 문경공 허공의 후손으로 청하대사성과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에 이른 당대의 석학으로 동인의 영수였던 허엽이며, 어머니는 예술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라 전해지나(유임순, 2004) 관련 자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나. 교육환경 및 기회의 제공

자녀의 재능 발현을 위해 한쪽 부모 또는 부모 모두 스스로 아이 재능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피카소와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예술가로서 자신들의 성장을 멈추고 희생했다. 피카소와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아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 한 일은 어떤 교사나 멘토도 할 수 없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도 학교보다 자신이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학교에서 아들을 되돌려왔다. 그렇지만 모든 창조적 성취자의 부모들이 자녀의 재능 개발을 위해 피카소나 모차르트의 부모처럼 희생하고 아이 중심으로 가정 체제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Winner(2005)는 재능 개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가 재능 영역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창조적 성취를 이끈 부모들의 양육방식은 이러한 Winner의 견해를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부모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녀들이 그들의 재능 영역을 체험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회를 조성해주었다.

이신동(2002)은 부모의 1일 평균 자녀학습 지도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재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학습지도 할애시간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더 많다고 밝힌바 있다. 과학교사였던 마리의 아버지인 스클로드프스키는 자녀의 학습에 사려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던 마리는 정식으로 문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언니보다 책을 더 잘 읽어 부모를 놀라게 했다. 교사 출신인 부모들은 딸의 교육에 신중하였고 딸이 조속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딸의 특별한 재능에 맞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진 않

았으나 마리는 스클로드프스키가의 가풍에 의해 아버지의 극진한 관심을 받으며 학습을 진행 했다고 한다. 스클로드프스키가에는 서재가 있는데 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의 자리를 서재에 마련하여 매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책상에 모여 함께 숙제를 했다. 숙제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들을 위로하는 등 자녀들의 학습에 애정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아버지는 자녀에게 문학에 대한 흥미와 소양 함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문학 감상 시간을 가졌는데 시를 외우고, 작품을 낭독하여 명작을 자신의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 마리의 아버지가 학구적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음과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개입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정휘(1996)는 영재 부모의 역할 중 하나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자녀의 학습에 직접 개입하여 지도하는 방법 외에 교육 환경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풍부한 지적 자극을 위해 부모의 독서 습관과 가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부모 역할 측면에서 마리의 아버지 스클로드프스키를 살펴보면 과학 교사였던 그는 서재에 많은 책이 구비되어 있었고, 장식장에 기압계, 유리관, 저울, 광물 표본, 검전기 등 과학 실험용 기구를 갖춰놓았다. 장식장에 구비된 실험용 기계에 대해서는 마리에게 특별히 가르치거나 재능 개발이라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어도 마리는 아버지가 구비한 전문 서적과 실험기계를 보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역량을 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학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던 시기에 마리의 아버지가 가진 과학적 소양이나 환경적 영향은 마리가 과학자로 성장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전기 및 화학을 가업으로 삼던 아이슈타인 아버지 헤르만은 동생인 야곱과 함께 여러 가지 전기 관련 기구를 만들곤 했는데 이런 물건들이 어린 아이슈타인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자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알베르는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수수께끼를 풀거나 복잡한 퍼즐을 하거나 구조물을 세우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카드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 일인데 인내와 집착이 필요한 놀이에서 그는 14층 높이의 집을 세웠다고 한다. 적절한 놀이감의 제공은 이후 재능개발과 관련이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아이슈타인의 아버지는 자주 저녁 식사 후 모여 있는 가족에게 쉴러와 셰익스피

어, 괴테 등의 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주었다고 하는데 알베르트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작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저녁 식사 후의 문학 활동이 추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부모 외에도 삼촌 야곱이 재능개발을 위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는 조카의 재능을 일찍이 식별하였고 알베르트에게 많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공학 교육을 받고 전기기사로 일하던 그는 알베르트에게 대수학과 기하학을 소개해 주었고 수학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을 북돋우며 도전적인 문제들을 제시해 오랜 시간이 걸려도 스스로의 힘으로 풀도록 도와줌으로써 집중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자신감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인슈타인은 삼촌 덕택으로 수학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발견하였으며 이후 혼자서 이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회고한다(Brian, 1996).

이름을 모르는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신나는 과학이란다.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일단 X라 하는 거야. 그랬다가 그 사냥감을 잡으면 비로소 올바른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지(삼촌 야곱의 대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알베르트의 재능 영역 개발을 도운 또 하나의 인적 환경은 막스 탈무트이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목요일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전통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가난한 학생인 막스 탈무트를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하였다(홍성욱, 2004). 알베르트는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가장 최근의 과학적 성과를 막스 탈무트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 과학관련 서적도 추천받을 수 있었다.

이 소년에게 철학적 사로의 세계를 열어준 것은 바로 막스 탈무트였다. 그는 지식에 목말라 하는 소년이 제기하는 모든 의문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자연철학에 대한 여러 책들을 추천해 읽도록 했다……. 아인슈타인은 탈무트의 관심사가 되는 모든 것을 탐색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 결과 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넓어졌다. 수학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자연과학 일반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쓰려고 계획한 누이동생 마야의 초안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음악을, 아버지는 문학을, 삼촌은 수학을, 아인슈타인가의 손님인 탈무트는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부모들

이 직접 아인슈타인을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재능 영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적환경은 부모에게서 야기되었다.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아인슈타인은 부모로 인하여 구성된 환경 요소를 통해 지적 욕구를 보충할 수 있었다.

자식의 재능을 인지하고 키워준 가장 대표적인 부모로 에디슨의 어머니를 꼽을 수 있다. 김홍원(2003)에 의하면 재능을 판별하는 교사의 판단은 부모의 판단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이며, 말을 잘 듣는 학생을 재능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반해 호기심, 창의성,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많은 수의 창의적 영재들은 학교에서는 잘난척하는 아이, 환영 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일반 아동보다도 오히려 낮은 성취를 보이는 미성취 영재로 전락하게 되기도 한다. 에디슨이 가진 재능 역시 그 당시 정규 교육에서는 발견되지도 환영받지도 못하였다. 토마스 에디슨은 오늘날의 ADHD아동으로도 추측되기도 한다. 에디슨의 왕성한 호기심과 특이한 행동, 엉뚱한 질문은 에디슨의 학교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Hartmann, 2005).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재능이 있음을 감지하고, 재능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에디슨 여사가 아들의 재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시키기 위해 아들의 호기심과 남다른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면 에디슨의 재능이 여전히 발현될 수 있었을까?

내 대학은 내가 자란 집 지하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고 지도한 교수는 바로 낸시 에디슨, 즉 나의 어머니입니다 (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중에서).

Csikzentmihalyi(1996)는 창의성이 뛰어난 인물들의 삶에서 학교가 한 일은 학교 밖에서 발견한 관심과 호기심을 억제하는 일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에디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에디슨이 학교를 다닌 기간은 3개월이 조금 안 된다. 아무리 영재라고 해도 저절로 재능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3개월도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에디슨에게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준 사람은 에디슨의 어머니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학업 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강요한다. 그러나 영재아의 부모들은 학업성취도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개인적인 교육활동 또는 자녀들의

영재성 개발 및 도전의 기회 제공, 영재아의 도전적 탐구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한다(Bloom 1985). 어머니 낸시 여사는 에디슨의 관심 영역 및 발달 패턴이 남다름을 알아채고 자녀의 학습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Rivero (2003)는 성공적인 홈스쿨을 원하는 부모에게 주는 충고로 인내심과 아이 특성에 맞는 교육 기법 습득을 언급한다. 교사 출신이었던 에디슨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아들의 질문과 탐구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책을 읽게 했다. 처음에는 아동 수준에 맞는 책을 읽도록 하였으나 차츰 수준을 높여 흘의 <영국사>, 시아르의 <세계사>, 리차드 백의 <자연 실험 철학> 등을 읽게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좋은 책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셈이었죠. 이런 교육에 대해 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1921년, 초등학교생에게 한 강연 중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에디슨에게 어머니 낸시는 자율적 학습 능력을 강조한다. 에디슨은 이 때 어머니로부터 길러진 독서 습관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이후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책에서 읽은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에디슨의 뜻을 따라 지하실에 아들을 위한 실험실을 설치해 주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게 했다. 아동의 발달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가 반응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반응적 학습 환경이란 아동의 능력과 요구 및 관심사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을 의미한다(Clarke, 2001, 이지현, 2003). 에디슨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 실험실은 에디슨의 욕구와 관심사에 가장 효율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환경 요소이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아들의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반응적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에디슨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집중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최적의 학습 환경의 기회는 위인들에게 결정적 경험으로 연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결정적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화가 있다(White, 2001).

1884년 알베르트가 다섯 살 때 크게 앓아누웠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

석 나침반을 사 주었다고 한다. 알베르트는 나침반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했다고 한다. 나침반 바늘이 방향을 잃어버릴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항상 북쪽 가리키는 나침반은 알베르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오랫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려고 노력했다(아인슈타인의 일화 중에서).

영재성이 성장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Walters와 Gardner(1986)는 영재성의 발달 요인의 하나로 “결정적인 경험”을 언급한다. 결정적인 경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한 순간의 경험으로 인하여 그 경험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또는 집중적인 취미생활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독립성 및 혁신-개방적 사고방식의 강조

Csikzentmihalyi(1996)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주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발견되는 모순점으로 많은 창조자들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아버지 부재는 창조자들에게 강한 독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그러한 독립심이 성취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정휘(2001)는 독립성을 지지하는 부모가 자녀의 높은 성취를 이끄는지 높은 성취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가 독립성을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자녀의 높은 능력을 부모가 인식할 때 아이에게 독립심을 심어 주거나 내적 동기를 이끌어 줌으로써 독립심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아이의 독립적 수행은 아이 자신의 내적 만족감을 높여줘 더 큰 노력, 더 큰 성취를 산출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로 대부분의 자녀 교육 연구자들은 독립성의 강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재나 높은 수행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독립심에 가치를 두고 양육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Winner, 2005).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부모도 아들에게 독립성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인슈타인의 동생인 마야에 의하면 어머니는 말문이 빨리 트이지 않던 첫 아들 알베르트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독립심을 길러 주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다. 네 살이 되지 않은 알베르트에게 혼자서 이웃집을 갔다 오게 하고 차가 다니는 찾길을 건너도록 했다. 어린 알베르트는 대부분이 마차이긴 했지만 길을 건너야 했고 네 살짜리 아이에게 이는 분명 위험한 일이었

다.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안전 불감증에서 어린 아들에게 무모한 독립심을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비밀리에 사람을 팔려 보내 아들의 수행을 관찰하게 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관심하기보다는 아들이 독립적으로 잘 해내길 바랐으며 독립적인 생활태도의 중요성을 아들에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 방식 하에서 자란 알베르트는 실제로 자율적인 의사 결정력과 행동 방식을 지녔다. 그러나 어머니 파올리네는 어린 아들에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등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Calaprice, 2002). 어머니 파올리네의 냉혹한 독립성의 강조는 알베르트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지나친 독립성의 강조는 세계 평화를 외치던 아인슈타인이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무심하고 냉혹한 면을 보였던 것을 감안할 때 알베르트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유복자로 태어난 뉴턴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독립심이 강요되다시피 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에디슨의 어머니 역시 독서교육을 통해 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으며 지하 실험실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실험실 사고로 잠시 에디슨의 아버지가 실험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실험실이 어머니의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난 에디슨의 독립공간이었음을 짐작해주게 하는 일이다.

퇴계의 어머니는 자신 스스로 독립심의 모범을 보였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부인은 결혼한 큰 아들과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살면서 나머지 자식들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졌다. 정약용의 부모는 특별한 스승이 없이 아이를 가르쳤다. 아버지가 벼슬에 나가지 않은 때가 있어 아들을 많이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약용은 스스로 외가의 학풍을 익힌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은 자녀에게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뜻을 세우고 지켜 나가도록 하였다. 어머니 사임당의 죽음과 가정의 불화로 잠시 출가하면서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지하였음을 보여주지만 자율적인 탐구와 선택으로 결국은 학문으로서의 불교를 떠나게 된다.

독립성과 함께 위대한 성취를 위한 주요 전제 조건은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창조성의 발휘는 어떤 영역의 전통을 따르기만 해서 안 된다. 어떤 영역에 대한 과거의 전통에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새로움을 발견

해 낼 수 없으며 모험을 감수하고 전통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 (Csikzentmihalyi, 1996). 창조적인 사람이 갖는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존 체제의 관습, 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운 혁신적·개방적 사고방식, 용기는 8인의 동서양 위인 부모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양육특성 중 하나이다.

마리 퀴리의 아버지 스클로드프스키는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자유사상가로 묘사되는 그가 얼마나 사회적 편견이나 관습에 영향 받지 않고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는가를 보여준다. 허난설헌의 경우 역시 그녀 부모의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다면 16세기 조선 사대부가의 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예술과 문학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에 태어난 뉴턴에게 교육받게 한 외삼촌, 학교 교육이 대중화 됐던 시기 에디슨의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바꾼 어머니, 유대교의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상가를 자칭한 아인슈타인의 부모, 유교만이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던 시기에 역법, 산수 등의 자연과학적 재능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한 정약용의 아버지 등의 예에서와 같이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8인 위인의 부모 모두 사회적 관습이나 편견평가 기준을 이 탈한 혁신적·개방적인 사고방식을 보였다.

뉴턴은 종교적 세계관과 비이성주의를 탈피한 최초의 근대적 물리학자이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세계관을 과감히 파괴하고 4차원의 시공간을 주장하였다. 마리 퀴리는 라듐을 발견하여 20세기 원자력의 시대를 개막케 한 인물이다(백선희, 2003).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에디슨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낸 발명가이다. 퇴계는 “이(理)”를 현행(現行)하여 창조하는 주체적인 실체로서 정립 시키고자 하였다(김동원, 1999). 율곡은 불교, 도교, 양명학 등을 두루 연구하여 사상의 폭을 넓혔으며 조선의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사회 전반을 지배 하던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다산은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법의학, 예악,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재능을 나타냈고,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허난설헌은 조선 사회가 갖고 있던 시대적 문제의식을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세심함이 담긴 시로 표현했다(유임순, 2004).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들이 남긴 창조적 성취이라는 공통점은 그들 가정의 혁신적·개방적 사고방식, 용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라. 강요하지 않는 교육

부모의 강요와 높은 기대가 잠재적 영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있다. Bloom(1985)에 의하면 부모의 압력과 높은 기대가 일반적으로 높은 성취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리학자 Elkind(2001)는 그의 저서 『The Hurried Child』를 통해 자녀에게 많은 요구와 압력을 주는 부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Winner(2005)는 부모의 강요에 반항하여 성취를 멈춘 영재아의 경우는 Bloom의 연구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Bloom과 같은 회고적 연구는 성취영재와 그 가족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강요가 발육을 방해하거나 미성취 아이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배적인 어머니를 둔 존 리스킨의 기분장애, 아버지의 강요와 압력 속에 성장한 존 스뉴어트 밀의 우울증, 최고의 학문적 영재였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 재능이 소멸된 애드래곤 드 멜로, 우울증과 심각한 삶의 장애를 느꼈다고 고백한 노버트 위너의 예를 통해 Winner(2005)는 부모가 너무 일찍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할 경우 영재는 성취에 관심을 잃게 되며 화를 잘 내거나 매사에 무관심하고 우울한 성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뿐이지 아이의 성취나 산출물을 강요하거나 인지적 발달을 재촉해서도 안 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동서양 8인의 사례에서도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우 삼촌 야곱이 아인슈타인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지만 수학 학습을 강요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삼촌 야곱과 아인슈타인의 수학 공부는 학습의 의미보다는 조카와의 상호 작용이나 여가 활동, 유희의 의미가 더 컸다. 뉴턴의 성장 환경은 양육자의 강요나 재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뜻대로 갖가지 도구를 구입하여 기계 장치들을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었다. 에디슨의 어머니도 정규교육과정에 실패한 아들에게 성취를 강요하거나 빠른 학습 진도를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실시했던 홈스쿨링도 재능 개발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정규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진다. 물론 에디슨 어머니인 낸시 여사의 탁월한 교육력으로 에디슨의 성향과 관심 분야를 잘 읽어내고 그에 맞게 교육한 것이 유효했지만 에디슨의 빠른 성취를 위해 강요하거나 서두르

지 않았으며 자연스런 성장 과정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퇴계의 어머니의 경우도 학문적 성취보다는 인격적인 사람됨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의 아버지부터 관리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퇴계도 과거나 벼슬 등에 강요받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학문에 몰입할 수 있었다. 율곡의 경우도 퇴계와 유사하게 어머니가 과거나 벼슬 등을 강조하지 않았고 효, 우애, 입지 등의 인격적인 부분을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에 율곡의 학문적 성장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정약용에게는 특별한 스승이 없다. 때마침 아버지가 벼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정약용의 아버지는 일찍이 아들이 지은 시를 보고 그의 재능을 예견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약용의 아버지가 아들 재능 발현을 위해 아들의 성취를 강요하거나 재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난설헌의 경우 우애 깊은 형제들이 서로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고 성취를 장려하였으나 여성의 재능 및 성취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난설헌의 성취를 강요했을 리 만무하다.

마. 부모 한 쪽의 절대적 지지

과거에는 자녀양육이 주로 어머니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은 어머니 몫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 책임이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가 참여하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대두 되고 있으며 양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성취에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해명(2007)은 단순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에서 발전하여 부부간 양육 방법 일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양육실체에 있어서 부모간의 불일치는 자녀에게 더 큰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응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노재욱(2007) 역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간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 앞에서 한쪽 부모의 양육방법을 다른 쪽 부모가 지지하지 않거나 비평한다면 이 부모는 양육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Astor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가정환경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영재는 양친이 모두 있고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어린 시절동안에 가정의 긴장과 불화, 정서적 압박이 비교적 적거나 없는 가정들이었다(김정휘, 주

영숙, 1990).

그러나 Eiduson(1962)의 표집에 의하면 저명한 과학자들의 경우 12세 이전에 절반 정도나 되는 사례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떠났거나 죽었으며 아버지 역할의 결여가 어머니 역할의 결여보다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휘, 1993). Csikzentmihalyi(1996)도 많은 창조자들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갖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흥미로운 모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재성의 비밀”의 저자 Miller (1996)역시 부모의 부재가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피력한 바 있다.

연구 대상인 동서양 창조적 성취자들의 경우 절반 정도가 어려서 한쪽 부모를 잃었다. 뉴턴은 유복자로 태어나 3세 되던 해에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하고, 퇴계도 태어난 지 1년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는다. 마리퀴리와 정약용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는다.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다 해도 양육은 주로 한 부모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한 부모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 양육자가 남아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던 창조적 성취자의 경우에도 주로 한쪽 부모가 자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모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자녀 양육이 주로 어머니(어머니의 부재 시 아버지)가 되었던 당시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나 양친 존재의 의미와 부모의 양육 태도 일치를 주장했던 Astor 프로그램 보고서와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Winner (2005)는 창조적 성취를 위해서는 최소한 한쪽 부모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서양 8인의 위인들 사례에서도 양친의 지지보다는 한쪽 부모의 지지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2. 창조적 성취를 이끈 동서양 양육자의 차이점

동서양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 속해있다. 각 문화권에는 그 문화 고유의 행동규범이 있으며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인간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교육의 목표나 양육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8인의 위인부모를 대상으로 창조적 성취를 이끈 동서양 양육방식의 나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능 개발 vs 인격적 성장

동양과 서양의 부모는 자녀 양육의 강조점 내지 목표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사료된다. 서양의 부모는 자녀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강조점을 둔다. 반면 동양의 부모들은 재능의 발휘보다는 인성 면에서의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사고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Nisbett, 2003) 동양의 인간관이 상황 의존적, 관계 중심적 인간관이라면 서양의 인간관은 상황 유리적, 개체 중심적이다. 개체 중심적인 문화를 가진 서양에서는 개인의 재능과 행복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교육의 목표일 수 있다. 반면 관계 중심적인 문화를 속성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전체와의 조화에 더 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격적·전인적 성장이 개인의 재능개발의 차원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 컸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처음 만난 음악교사에게 의자를 던진 아들의 행위에 대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계속하여 음악 교육을 시켰으며, 에디슨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알자 교사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곧장 학교를 그만두게 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뉴턴이었지만 외삼촌은 재능에 초점을 두어 진학을 강하게 권유한다. 동양과 비교했을 때 재능 개발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조화로서의 인성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동양의 부모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퇴계의 어머니, 율곡의 어머니, 정약용의 아버지 모두 재능 개발 차원에서의 학문적인 성장보다 인간됨을 더욱 중시 여겼다. 인성 교육에의 강조점은 비단 연구대상인 창조적 성취자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깊이 팽배해 있던 의식이다. 동양에서 개인의 성장이란 수신(修身)제가(齊家)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신을 한 이후에야 다음 단계의 과업으로 이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 및 구조가 인격적 성숙을 우선 필요조건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었다. 자신의 인간됨이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차원이 열리는 구조이다. 그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학문이나 재능보다 먼저 “사람됨”을 갖출 것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인간 발달의 개념 및 추구하는 인간상의 차이가 동서양 양육방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의 차이는 서구화·공업화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사회에 가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양 문화권인 미국과 동양 문화권인 한국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최현광(1999)에 의하면 미국 부모들은 자녀 개인의 관심, 능력을 중시함에 비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속한 집단의 이해나 관심을 중시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나. 정서 표현 vs 정서 억제

Matsumoto(1989)는 일본 대학생들과 서구 문화권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 학생들은 자아 중심적 정서의 체험시간이 짧고 그 표현 강도가 낮으며 가능한 정서 표현 특히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조궁호, 2003). 동양 문화권은 정서의 표현 강도나 횟수 면에서 서양문화권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동서양 8인의 창조적 성취자들의 부모가 보인 양육 방식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마리 퀴리의 아버지는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리를 비롯한 그의 자식들에게 기록에 나타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자식들은 실의에 빠진 아버지를 위로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의 부모, 특히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의 생 자체를 자신의 생각대로 좌지우지 하려다 아들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간혹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따로 떨어져 있어 상호작용 자체가 미약했던 뉴턴과 뉴턴의 어머니는 서로 부정적 정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1662년 작성된 피츠윌리엄 노트를 보면 어머니와 뉴턴 간에 감정적 대립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종종 발견된다. 계부와 어머니, 또 재혼 후 어머니가 낳은 동생들에 대한 증오, 농장 일에 뜻이 없는 아들과 재산 관리를 위해 아들에게 농장 일을 시키는 어머니, 진학 문제로 야기되는 모자간의 의견차, 그로 인한 어머니와 뉴턴과의 갈등·대립 등은 서로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게 한다.

이에 반해 동양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정서 표현을 억제한다. 어린 자식 6명을 혼자서 키우려 했으면서도 퇴계의 어머니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어려운 일을 당해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듯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퇴계 어머니와 다르게 학문이 있던 율곡의 어머니는 직접 자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식과의 상호작용도 더 빈번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율곡이 “말씀이 적고 행동은 삼갔다”라고 어머니를 평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당은 내적으로 정서를 다스려 표현을 자

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의 기록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는 정약용이 아버지의 어려움이나 처지를 걱정하는 등의 정서적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내의 죽음에 이어 여러 당쟁에 휘말려 벼슬을 하지 않던 5년간의 아버지 모습을 정약용은 “한가로이 지내셨다”라고 회고했다. 적어도 아들 앞에서는 의연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마음이 싫을 때는 돌이켜 스스로 반성하며 자신의 마음을 화락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정약용의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보건데 정약용의 아버지도 정서 표현을 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서양 위인의 부모가 나타난 정서 관련 양육방식의 차이는 각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양 사회는 내적 감정의 표출을 자율적 인간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솔직한 자기표현을 강조한다(조궁호, 2003). Averill(1982)의 연구에 의하면 서양인들의 정서 표출은 자기상의 증진이 목표이고 정서 표출이 서로간의 관계 조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 유교를 전통으로 하는 동양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 중 하나로 절제력을 강조한다. 절제력은 욕구와 감정을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하는 능력으로 인내심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 학문 탐구에까지 엄격하게 요구되었다(이순형, 2003).

다. 인간적인 부모 vs 모범적인 부모

창조적 성취자의 재능이 발현되기까지 그들의 부모는 대부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많은 노력을 보이며 자녀들을 양육한다. 창조적 성취자들의 부모가 보인 양육방식 중 동서양을 구분 짓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부모의 생활 태도상의 차이이다. 서양의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혹은 자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 노력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자녀 자체에 대한 관심이지, 자녀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아니다. 그들이 하는 노력은 자녀를 위해 환경을 변경하거나 보다 바람직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서양의 부모 중에도 자녀에게 모범된 부모도 있으나 그것은 자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 적절하다. 마리 퀴리의 아버지는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고 새로운 과학 지식이나 원리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생활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딸인 마리의 발전이나 교육을 위한 의도

적인 행위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부모가 아인슈타인 앞에서 보인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강조하는 행위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뉴턴의 어머니의 경우도 아들을 위해 자신의 변화를 의도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살 된 아들을 두고 재혼하는 모습이나 성장한 뉴턴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동양의 부모를 돌이켜 보면 상반되는 모습이 보인다. 동양의 부모는 모범적인 자신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 율곡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다. 정약용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모범적인 삶을 실천하였다. 퇴계의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절제·인내라는 덕을 보여주며 자식들의 모범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또한 자식들에게도 타인에게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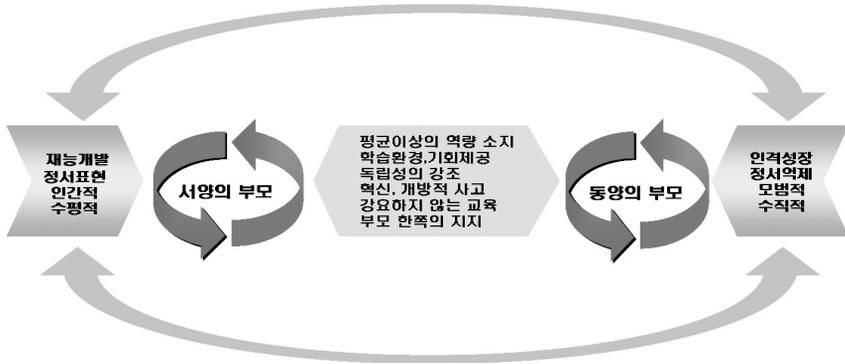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서양의 위인들은 부모를 동일시 대상으로 여겨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으나 동양의 경우 부모가 동일시 대상으로 선택되고 부모라는 자원을 통해 혹은 부모라는 역할모델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생활태도 및 가치관은 서양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 더 잘 승계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라. 수평관계 vs 수직관계

서양 문화의 전통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동양 문화의 전통은 유교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서양의 인간관은 평등을 강조한 수평 관계 구조이다. 반면 유교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동양의 인간관은 상하관계를 중시여기는 수직구조의 경향이 강하다. 창조적 성취자들과 그들 부모사이에도 이러한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들은 자녀에 의해 위로 받고 자녀와 갈등을 벌이며 자녀에 의해 배척당하기도 한다. 마리 퀴리의 아버지는 투자 실패로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괴로워하지만 자녀에게 큰 위로를 받는다.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는 다른 생활 태도와 양식을 보였고, 전공 선택, 결혼 문제에서는 극심한 갈등 상황에 놓인다. 어린 시절의 아인슈타인은 그의 부모가 가치를 두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노

골적인 거부감을 표현하였다.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후 부모와의 갈등 끝에 전공은 부모의 뜻을 따랐지만 결혼 문제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여 부모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두고 재혼한 어머니와 계부, 재혼 후 어머니가 낳은 동생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뉴턴은 가족에게 헐박까지 서슴지 않았고 진로 문제에 대해 어머니의 의견은 고려한 흔적도 없다.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받거나 따라야 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각 개체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설정된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양의 상황은 서양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퇴계의 어머니는 학문이 없었지만 조선 최고의 유학자로 성장할 신동이었던 퇴계는 배움이 없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한다. 율곡, 정약용, 허난설헌의 경우도 자신들의 양육자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발견할 수 없다. 율곡, 정약용, 허난설헌 등의 양육에 깊이 관여한 부모가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으며 자녀에게 모범적 모델로 작용했음을 감안해도 부모의 가치관이나 행동방식 등을 세대가 다른 자녀와의 갈등 없이 그대로 따르게 했다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서양 풍토와는 다른 동양의 양육 관련 특성임에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사상 중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충효 사상이다. 충 사상의 경우는 절대적인 위계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즉, 옳고 그름을 헤아려 임금의 잘잘못을 판별하고 비판하고 항의하는 입지를 둔 군신관계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맹자는 민심을 잃은 왕은 교체되어야 한다며 민의를 우선시 한 충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효는 충과는 다른 차원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는 특별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을 간하되 부모가 듣지 않거든 세 번 간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울며 따르라고 한다(이순형, 2002). 물론 울며 따르는 자식의 말을 부모가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을 절대적 명령자와 절대적 복종자라는 수직적 관계로 파악했다는 뜻이다.



[그림 1] 동서양 부모의 양육 특성 비교

IV. 결 론

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창조적 성취자 부모의 양육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영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 동시에 부모의 양육 특성에 있어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동서양 8인의 창조적 성취자를 통해 창조적 성취를 이끌 수 있는 양육특성을 고찰해 보았지만 실제 많은 예외가 존재할 것이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 외에 창조적 성취를 이끄는 양육특성과 관련된 다른 많은 특성들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또한 창조적 성취를 이룬 성공한 위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부모를 미화한 흔적도 없지 않다. 회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부모 양육방식과 자녀의 창조적 성취간의 인과관계 파악에서도 이 연구에서 언급된 원인이 다른 사례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서양과 동양이라는 ‘문화’나 ‘문화적’의 차이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탐색된 창조적 성취자 부모의 인성이나 생활방식에서 그 차이점이 제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집단 내 편차(within group variation)에 대한 이해가 집단 간 차이(between group variation)의 이해만큼이나 크고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서양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대변되고 동양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집합주의적(collectivism) 경향성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양인들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저

남들 정도만 혹은 남과 더불어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동양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들과 마찰 없이 더불어 사는 법을 강조하지만 서양에서는 학생 개인의 성향을 상대적으로 더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동양의 집합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집합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서양인이 여럿 존재하고 꽤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한국 사람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창의성의 비교문화적 관점에 대한 연구에서 동양과 서양 혹은 동양과 서양 문화에 대한 과잉 일반화는 각각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닌 오히려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연구결과의 도출 및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Kwang(2002)은 비교문화적 연구들이 종종 오렌지와 사과를 유사한 틀로 비교하여 순위화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문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Kwang의 충고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교문화적 연구들이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또 시도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의문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다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도는 다문화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임에 틀림없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도 어렵지만 기르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최소한 영재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길러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영재 양육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성옥, 1994; 김정휘, 2000; 윤여홍, 1996; 이재연, 진선미, 1999). 영재 양육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 경향을 분석하고 영재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창조적 성취자의 부모를 회고적으로 연구함과 더불어 동서양의 뛰어난 동시대의 창조적 성취자와 그의 가족을 종단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다른 동양권 나라들의 창조적 성취자의 양육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종종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권 나라들은 동양권이라는 공통분모 하에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실체가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최근 점차 늘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방식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양육 방식 하에 성장한 아동들의 발달 과정을 고찰하는 것도 세계화 시대에 필

수적인 연구이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는 창조적 성취자와 그의 부모에 대한 보다 창의적인 노력들이 시도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필선 (2001). **영재아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금장태 (2005).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서울: 이플리오.
- 김동원 (1999). **퇴계사단칠정론의 미학적 해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성옥 (199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성원, 최성연 (2002). 영재아의 부모 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3), 671-681.
- 김언주 (1998). 영재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 **경기과학**, 104, 31-56.
- 김정휘 (1993). **영재학생: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휘 (1996). **영재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 충분 조건들**. 서울: 원미사.
- 김정휘 (2000). 가족이 영재성 발달에 끼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10(2), 109-138.
- 김정휘, 백영승 (2001). 영재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교육연구**, 18, 61-109.
- 김정휘, 주영숙 (1990). **영재 학생을 위한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원 (2003). **영재아 판별**. In 박성익 외 6인.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노재욱 (2007). **아버지는 천재를 만들고 어머니는 영재를 만든다**. 서울: 상상하우스.
- 문용린 (2004).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북스.
- 박석무 (2004).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서울: 한길사.
- 박석무, 정혜림 (1996). **다산문학 선집**. 서울: 현대실학사.
- 박영순 (2003). **조선시대 자녀교육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박영익 (2003). **조선시대 자녀 교육에 대한 고찰-정약용과 신사임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배남주, 여성희 (2004). 과학영재성 판별 및 부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사설영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3), 247-255.
- 배진수 (1995). **영재아동의 교육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
- 백선희 (2003). **마리 퀴리**. 서울: 동아일보사.
- 성윤자 (1998). **조선사의 여인들**. 서울: 도서출판 넥서스.
- 신연식 (1989). **어머니상은 이렇게**. 서울: 학문사.
- 신연식 (1997). **위인의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서울: 국민일보사.
- 심혜자 (2001). **신사임당 교육의 이념과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오시림 (1993). **신사임당**. 서울: 민성사.
- 유가효 (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 양육방식이 비교 문화적 고찰과 방향 모색.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63-88.
- 유입순 (2004). **허난설헌 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윤여홍 (1996).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정신 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 53-71.
- 이덕일 (2004).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서울: 김영사.
- 이미경 (1993). **신사임당의 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순형 (2003).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신동 (2002). 영재와 평재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 비교. **영재와 영재교육**, 1(2), 29-45.
- 이은상 (1994).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서울: 성문각.
- 이은직 (1990). **인물로 보는 한국사**. 서울: 도서출판 일빛.
- 이재연, 진선미 (1999). 영재 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아동연구**, 13, 53-96.
- 이지현 (2003). **영재의 부모와 교사**. In 박성익 외 6인.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해명 (2007).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 서울: 동아일보사.
- 이희영, 안삼태, 최태진 (2003). 영재아 부모들의 고민유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5(2), 193-205.
- 윤사순 (2002). **퇴계 이황**. 서울: 예문서원.
- 장진영 (2000). **아름답고 평등한 귀리 부부**. 서울: 동서고금.
- 장희익 (2002). **현대과학혁명의 선구자들**. 서울: 범양사.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들**. 서울: 나남출판.
- 전경원 (2000).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서울: 학문사.
- 최현광 (1999). **자녀교육 성공의 모든 것**. 서울: 금영.
- 최성연 (2001). **영재아의 부모 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효찬 (2005).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서울: 예담.
- 황준연 (2000). **이울곡, 그 삶의 모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성욱 (2004). **뉴턴과 아인슈타인, 우리가 몰랐던 천재들의 창조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loom, B.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e.
- Brian, D. (1996). *Einstein Die Biographie*. **아인슈타인 평전**. 서울: 대한교과서(주).
- Calaprice, A. (2002). *Dear Professor Einstein(Albert Einstein' letter to and from children)*.

서울: 세종서적.

- Charlotte, A. (2004). Messages for parents and teachers. *Gifted Child Today*, 27(2), 14-17.
- Clarke, R. (2001). **천재들의 뇌**. 서울: 해나무.
- Csikzentmihalyi, M.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David, C. W. (2005). Family environment and talent development of Chinese gifted student in Hong Kong. *Gifted Child Quarterly*, 49(3), 211-221.
- Eiduson, B. T. (1962). *Scientists: Their psychological world*. New York: Basic.
- Elkind, D. (200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New York: Perseus Publishing.
- Feldman, D. H. (1991). *Nature's gambit: Child prodigies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Gardner, H. (1986). *The mind's new science: A history of the cognitive r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oertzel, V., & Goertzel, M. (2004). *Cradles of eminence: Childhoods of more than 700 famous men and women*. Scottsdale, AZ: Great Potential Press.
- Hartmann, T. (2005). *The Edison gene*. Rochester, VT: Park Street Press.
- Kwang, N. (2002). *Why Asians are less creative than Westerners*. Singapore: Prentice-Hall.
- Miller, A. (1996). *Insights of genius*. New York: Copernicus.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 and why*. New York: The Free Press.
- Patricia, H. (2004). Parenting the gifted: The ongoing riddle of which nature is best for what nature: Parents promoting gifted potential. *Gifted Child Today*, 27(1), 28-31.
- Piirto, J. (2004). *Understanding Creativity*. Scottsdale, New York: Arizona Great Potential Press, Inc.
- Simonton, D. K. (1994). *Greatness: Who makes history and why*. New York: Guilford.
- Westfall, S. (1993). *The life Isaac Newton*. 서울: 사이언스북스.
- White, M. (2001). **에디슨은 전기를 훔쳤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 Winner, E. (2005).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ew York: Basic Books.

= Abstract =

Comparison of the Rearers of Creative Achievers in the East and the West

Yeon-Hee Moon

University of Incheon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parents who turned their children into creative achievers in the East and the West in an attempt to determine the cultural generality and specificity of the rearing of gifted children.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Western parents, who brought up Marie Curie, Einstein, Edison and Newton, and Eastern parents, who raised Lee Hwang, Lee lee, Jeong Yak-yong and Heo Nanseolheon. To compare their parenting characteristics, common denominators and differences, a variety of data were investigated, including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parents, biographies, critical biographies, autobiographies and letters. As to the common features of the parenting style of the eight Asian and Western parents, they were talented themselves or capable of educating their children in their talent areas, and provided them with optimal learning environments or chances without pushing them. They accentuated independent spirits and emphasized renovative and open way of thinking. And at least one parent in each family showed absolute support for their child. Regarding differences in parenting styl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Western parents urged their children to develop their talents with more intention, rather the Asian parents prized the well-rounded personality and growth of their children. The former interacted with their children in an horizontal manner, but the latter had a vertical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former expressed their feelings in an active way, but the latter had their emotion in control. Besides, the Western parents disclosed themselves to their children by showing them even

their mistakes or improper behaviors, whereas the Asian parents strived in everyday life to give their children a good example or a good role model.

Key Words: Cross cultural study, Parental characteristics, Creative achievement, Parent education, Raising the gifted

1차 원고접수: 2009년 12월 11일

수정원고접수: 2010년 3월 31일

최종게재결정: 2010년 4월 20일